

研究論文

1970년대 농촌주택개량사업
- 주생활의 변화와 농민들의 대응 -*

이 승 훈**

I. 들어가며	V. 마치며
II. 연구 내용과 방법	<참고문헌>
III.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추진과 일상의 대응	<국문요약>
IV.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결과와 그 영향	

I. 들어가며

박정희 시기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1971년 새마을운동을 통해 시작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풍경과 주거 환경을 전통적인 농촌의 모습과 단절시켰고, 당시의 변화 모습은 오늘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70년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기점으로 하여 ‘농촌 주택의 근대화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1)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과제번호: KRF-2004-073-BS2005).

** 상지대학교 연구교수, 사회학 전공(monlee@dreamwiz.com).

1) 장성준·윤장섭, 「농촌주택표준설계도의 역할과 현지수용에 대한 연구」, 『산업기술연구소논문집』, 4권(산업기술연구소, 1985); 김태원·윤일이·조성기, 「농촌주택의 근대화 과정에서 본 내·외부 공간 변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논문집』, 제60집 부산대학교 2001), 60 쪽 물론 근대화 과정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학자들마다 다양할 수 있다. 다만 과거 재래 주택과 다른 형태의 주택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근대화 과정’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하지만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민들의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당시 농민들의 생활 수준이나 필요의 우선 순위 등을 무시한 채, 정부에 의해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이었다. 때문에 당시 강제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농민들의 많은 불만들이 있었고, 또한 농촌 생활 양식과 어울리지 않는 도시형 양육의 보급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을 토로한 사례들도 있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추진과 농민들의 필요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농민들이 정부 정책의 수동적인 동원 대상이었다고만 파악하기는 어렵다. 농민들도 나름대로 당시의 조건과 신념에 기초하여 박정희 정권의 (반)강제적 동원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새마을사업 성공 수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적극적인 동의를 하고 앞장섰던 새마을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소극적인 형태로 순응하거나 회피하는 농민들도 있었다. 따라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단순히 주택개량의 통계만을 가지고 ‘성공’이었다고 규정하거나, 그 강제성 때문에 ‘실패’한 사업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결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일상생활의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일상생활의 접근이란, 뒤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당시 박정희 정부가 어떤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 농민들은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이를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동원에 대한 농민들의 다양한 대응 양식들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크게 3가지이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농촌 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이다. ‘농촌 주택의 근대화과정’이라고 평가받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 과거의 농촌 주택을 어떤 식으로 바꿔놓았는지, 그 변화 내용을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주생활의 변화에 대한 농민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강제만도, 또 농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한 것만도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복잡하고 다층적인 일상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는 정책적 성과에 대한 판단과 농민들의 주관적인 판단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정책적 성과가 매우 미흡하거나 불투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이를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먼저 다음 단락에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고, 이 글에서 활용하고 있는 연구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추진배경과 정책적 목표, 그리고 추진과정과 가시적 성과를 정리할 것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지붕과 부엌 등 부분적 개량에 치중하였던 초기 사업과 본격적으로 도시형 양옥을 신축하기 시작한 후기 사업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거 농촌의 전통 주택의 특성을 알아보고,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변화된 주거 환경이 무엇인지를 밝힌 다음, 이에 대한 농민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IV장에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결과와 그 영향이 무엇이었는지를 평가하고 해석해보고자 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농민들의 주관적인 평가 모두를 포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앞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둘러싼 일상의 다양한 대응들이 박정희 체제의 유지 또는 균열에 가지는 함의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II. 연구 내용과 방법

1. 기존 논의 검토

지금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관한 연구는, 정부에서 정책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연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건축학과나 가정관리학과 등에서 다뤄졌다. 건축학과 연구들은 주로 농촌 주택의 평면 구성의 변화와 이용실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²⁾ 가정관리학과 연구들은 농촌 주거의 실태 조사를 통한 농민들의 주거 만족과 불만족을 조사함으로써, 이후 농촌 주거 개선 방향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2)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성우·윤정숙·이유미, 「공간사용을 중심으로 본 농촌주택의 근대적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6호(대한건축학회, 1996); 한필원, 「농촌 지역 농가주택의 이용패턴 변화에 관한 연구: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1987); 이동락, 「농촌주택 옥내 생활공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 논문(1988); 예용광,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나타난 마을 및 주거 공간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2003); 이원, 「농촌 주택의 주공간과 주생활 상호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1987) 등이 있다.

있다.³⁾ 이러한 연구들은 농촌 주택의 변화 과정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정책적 배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민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사업이 아니었다.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배경과 맥락 아래에서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과거 전통 주택과 개량 주택의 단순한 비교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정책 평가에 대한 연구도 있다.⁴⁾ 이 논문에서는 주택개량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정부의 정책적 목표들이 실제 농민들에게 얼마나 성취되었는가를 다루고 있다. 단순히 통계적 수치나 풍경의 변화라는 가시적 결과가 아니라, 정책 목표가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를 통해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추상적인 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측정 지표 사이에 지나친 비약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 목표와 관련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평가함으로써, 정책 목표와는 별개로 농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970년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실시 배경과 정책적 목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농민들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그 목표로 한다. 나아가 이러한 시도는 박정희 시기와 새마을운동을 일상의 민중들이 어떻게 수용하였는가를 이해하는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일상생활 접근의 필요성

박정희 시기는 한국 사회의 근대성 형성의 기본틀이 확립된 중요한 시기이다.

3) 이에 대한 연구를 보기 위해서는 조재순, 「농촌가정생활향상에 따른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1978); 최동숙, 「재래주택주민과 개량주택주민의 주택개량에 대한 태도와 주거만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1981) 등을 볼 것.

4) 이대복, 「농촌주택개량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81).

이 시기에 대한 많은 연구와 관심이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그동안 박정희 시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거시적인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민주주의 관점에서 국가의 억압 기능을 비판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아니면 산업화의 관점에서 경제 발전의 추진과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들은 ‘능동적 국가와 수동적 개인’이란 이중 구조를 설정하고, 국가의 영향력이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방식을 전제한다. 따라서 그 시기를 살았던 다양한 행위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된다. 개인은 단순한 구조의 담지자가 아니다. 박정희 시기를 살았던 “개인들을 어떤 특정한 정체성만으로 살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 시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이해하는 역사적 오류, 즉 ‘기대의 사고(wishful thinking)’에 따라 역사를 인식한다는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⁵⁾ 따라서 한 시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행위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기도 하다. 박정희 시기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위해서도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여기에서 일상생활의 접근 방법이란 먼저 정치와 경제 영역 등과 같은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에 대한 관심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정책입안자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아닌, 그 시대를 살아간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⁶⁾ 따라서 70년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일상생활의 시각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주생활이라는 사적 영역을 그 시대를 살아간 농민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대한 접근이 단순히 주변적인 문제와 미시적인 사실들의 축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시적인 사실들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시적인 구조와 가치 지평을 필요로 한다. 만약 거시적인 가치 지평을 놓치게 되면, 자칫 일상생활 연구는 과거를 정당화하는 역할로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일상생활의 관점으로 사회 현상에 접근한다는 것은 구조적 시각과

5) 김동노, 「식민지 시기 일상생활의 근대성과 식민지성」,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혜안 2004), 15쪽.

6) 일상생활 접근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가장 기초적인 차원의 규정이다. 일상생활의 개념과 접근방식의 다양한 논의를 보기 위해서는, 박재환(편), 『일상생활의 사회학』(한울아카데미, 1994); 강수택, 『일상생활의 페러다임』(민음사, 1998) 등을 볼 것.

일상의 다양한 사실들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를 의미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일상생활의 접근도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배경과 조건 아래에서 접근해야 한다. 곧 국가동원체제로서의 박정희 정권이 어떤 목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했으며, 이에 농민들은 어떤 동의와 저항을 하였는가? 또한 그것이 체제 유지에는 어떤 기여를 했고, 또한 어떤 균열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은 박정희 시기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일상생활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조사와 인터뷰를 병행하여 활용하였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실시 배경이나 정책 목표, 그리고 다양한 추진과정들은 정부 발간 문서를 포함하여 많은 연구 결과물들을 참고하였다. 또 당시의 사업 추진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 분과에서 실시하였던 여론 조사 결과물과 그 당시 발간되었던 잡지 또는 소설 등을 활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워지지 않는 부분들은 당시 주택개량사업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에게 대한 직접 인터뷰를 통하여 보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인터뷰 자료는 이 글의 핵심 근거로써 보다는 논의를 보충해주는 보완 자료로 이용하였다.

인터뷰를 위해 먼저 예비조사 차원으로 4명에 대한 간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7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강원도 원주시, 전북 김제시, 그리고 충남 연기군 등에서 총 3회에 걸쳐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 가운데는 지방개량을 포함 재래식 주택을 부분 개량한 사람이 6명, 그리고 도시형 문화주택으로 신축한 사람들이 6명으로, 총 12명이었다. 인터뷰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사이였으며, 상황에 따라서 개별 인터뷰와 2명 이상의 집단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인터뷰의 방식은 글쓴이의 질문에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⁷⁾

7) 이후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문 마지막 괄호 안에 응답자의 거주지 성씨 성별 나이 등을 기록할 것이다. 곧 인용문 마지막에 “연기군 백00, 남 61”이 적혀 있으면 충남 연기군에 살고 있는 61세의 남성인 백00씨의 인터뷰 내용이라는 의미이다.

III.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추진과 일상의 대응

1. 추진 배경과 사업 목표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추진 배경은 농촌 새마을운동을 실시하게 된, 당시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⁸⁾ 무엇보다도 박정희 정권은 1, 2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 1960년대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의 극단적인 불균형 성장전략은 국민총생산과 공업부문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온 반면, 농업과 농업부문의 심각한 낙후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 전반에 도시근로자의 가구 소득을 상회하였던 농가소득이 1970년에는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7.1%까지 낮아졌다. 농업의 상대적 낙후와 침체는 국내 공산품 시장의 협소, 식량 수입에 따른 막대한 외화 낭비 등 공업의 지속적 성장 자체를 위협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⁹⁾ 따라서 경제적 측면으로 당시 박정희 정부는 농촌을 대상으로 한 내수시장의 확충과 불황 타개, 그리고 식량증산과 소득증대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점차 심화되어가는 도농간의 격차와 이농현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 농업과 농촌 부문의 상대적 낙후는 농촌 인구의 대량 이농을 가져왔다. 1960년대 전반에 매년 19만 명에 지나지 않았던 순이농 인구가 196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50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그 결과 도시 인구의 비율이 1960년 29.9%에서 1970년에는 41.2%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것은 다시 도시의 빈민 문제와 노동 문제로 옮겨지게 되었다.¹⁰⁾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영구 집권의 초헌법적 독재체제 구축을 시도하고 있었다. 1969년의 3선 개헌, 1971년 대통령선거, 위수령과 비상사태 선포,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10월유신과 유신헌법 확정 등 일련의 사건들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 과정에서 박

8) 임경택, 「한국 권위주의체제의 동원과 통제에 대한 연구: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1991), 21~59쪽

9) 박진도·한도현, 「새마을운동과 유신체제 박정희 정권의 농촌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통권 47호(역사문화연구소, 1999), 44쪽.

10) 위의 논문, 44~45쪽.

정권은 도시의 지식인과 야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였고, 이에 박정희는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장기집권 독재체제를 정당화하는 지지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였다.¹¹⁾ 다시 말하면, 농촌 새마을운동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정치적 저항이 농촌으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고, 더 나아가 농촌을 강력한 정치적 보루로 재건하여 저항 세력을 포위하기 위한 정치 전략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 사회의 경제적 위기를 일정정도 극복하고, 나아가 농민들의 정체성 위기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새마을운동이 추진된 것이라 하겠다.¹²⁾

1972년 4월 14일 당시 내무부장관 김현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마을운동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곧 “새마을운동은 한마디로 박 대통령의 집념이요 경륜”이라고 전제하면서, “오랜 인습에 젖은 농촌은 환경구조의 개혁이 비롯되어야 정신 개조가 있고, 이런 개혁 없이 증산은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다.¹³⁾ 이는 ‘환경개선 ⇨ 정신개혁 ⇨ 증산’이라는 농촌 새마을운동의 목표를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실시배경과 목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목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거환경의 조성 뿐 아니라, 이를 통한 농민들의 태도와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농촌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농간의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적 통합의 향상, 정치적 지지를 통한 안보 확보, 그리고 농민들의 구매력 증대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을 낳게 한다는 것이다.¹⁴⁾

이런 목표 아래 추진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다음과 같은 정책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었다.¹⁵⁾ 첫째, ‘농촌소비성향의 역자이다 70년대 중반 이후 늘어난 농가의 잉여소득을 문화주택의 건설자금으로 동원함으로써, 농촌의 소비성향을 억지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기본전략’이라는 것이다.

11) 위의 논문, 43쪽

12) 고원, 「박정희 정권 시기 농촌 새마을운동과 ‘근대적 국민 만들기」, 『경제와사회』 제9호 한국 산업사회학회, 2006), 186~187쪽

13) 정연주 외, 「르뽀: 새마을운동」, 《신동아》, 1972년 7월호 181쪽

14) 이대복, 앞의 논문, 51쪽

15) 내무부, 『민족의 대역사: 농촌주거사』(내무부, 1979), 65~68쪽

둘째, ‘농촌재산형성의 장기전략’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의 기본 자산은 주택과 농토라고 하겠으나, 그동안 농촌 주택의 자산적 의미는 너무 경시되어 왔다 하지만 농촌 주택에 대한 투자는 농촌의 기본 자산을 증식시키고 농촌의 재산을 형성해나가는 실물 투자가 되는데, 이는 농촌 재산 저축으로 나타난다 농촌 주택은 농촌의 사회간접자본으로서 농촌 주택 투자의 확대는 바로 농촌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셋째, ‘농촌 건전풍토의 해이 예방’이다. 산뜻한 문화 주택을 이루어 놓은 농민들의 기쁨과 보람은 내일의 보다 잘 사는 농촌을 이루어 놓겠다는 의욕과 자신을 낳게 되며, 긍지와 활력이 넘치는 건전한 농촌 풍토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넷째, ‘농촌 의식구조의 변혁’이다. 조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누리게 되면 생활의식은 향상되어 농민들의 의식 구조 속에 문화적 윤리와 생산적 가치 그리고 합리적 사고방식이 뿌리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농간 복지문화의 평준화’이다. 도시 주택에 미치지 못하는 농촌 주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뒤떨어져 있는 농촌의 주생활 수준을 도시의 주생활 수준에까지 도달시킴으로써 농촌 생활의 문화복지화를 성취한다는 것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이러한 목표와 정책 효과를 기대하면서 추진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실제로 이러한 목표와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는가? 그에 대한 대답에 앞서, 사업의 추진과정과 농민들의 다양한 대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추진과정과 농민들의 대응

앞서 살펴본 것처럼,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지붕, 부엌, 변소 등 전통 주택의 부분적 개량에 중점을 두었던 초기 단계와 도시형 양옥의 신축을 추진하였던 70년대 중반 이후의 후기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번 단락에서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통하여 농촌의 주거환경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그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재래식 농촌 주택의 특징을 논의하도록 한다.

1) 재래식 주택의 특징

전통적인 농촌 주택의 실태를 기능, 평면 구성, 구조, 설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능면에서 농촌 주택은 도시 주거공간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도시의 경우,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면서 당연히 주택은 거주 공간으로서의 의미만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농촌의 경우 마당의 활용이나 부속사 이용 등이 보여주는 것처럼 주거가 생산 활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농촌 주택에서의 방들은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방으로 고정되기 보다는 계절이나 때에 따라 융통성 있게 사용되며, 옥외 공간과의 연계성 때문에 개방적인 공간 형성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¹⁶⁾ 이러한 공간의 미분리와 개방적 공간의 특성은 동시에 공간의 비효율성, 비위생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고쳐져야 할 농촌 주거의 전근대적 요소로 거론되기도 한다.¹⁷⁾

한편 평면 구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재래의 농촌 주택은 대들보 아래 방을 일렬로 배치한 홑집형 민가와 2열로 배치한 겹집형 민가로 분류할 수 있다. 겹집 형태(田 형태)는 한반도의 동북 지방, 곧 대부분의 북한 지역과 강원도 동쪽과 경상북도의 일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반면 홑집은 한반도의 서부와 남부에 주로 분포하며, ‘一’자형과 ‘ㄷ’자형으로 구분된다. ‘一’자형 주택은 남부 지방에 넓게 분포하며 과거로부터 초가삼간이라고 불리웠던 주택 형태이다. 이에 비해 ‘ㄷ’자형은 경기도와 강원도 남부, 그리고 충청도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¹⁸⁾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대상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농촌 주택은,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홑집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 측면에서 볼 때, 재래 농촌 주택의 구조는 주로 목조, 흙벽체에 초가 지붕으로 되어 있다. 1977년도 정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촌주택은 대체로 규모의 영세성(건평 9평 이하의 주택: 33.7%)이라든지, 주택사용자재의 불량성(흙 또는 흙벽돌집: 73%), 시공자체의 조잡성 그리고 노후된 건물(30년 이상 주택: 43.6%)과 구조적 결함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당시 농어촌 불량주택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선 시급히 개량을 요하는 불량주택은 총 543천동으로 집계되었으

16) 이호진, 「농촌과 도시의 주거공간 비교연구」, 『건대학술지』, 제29집 건국대학교 1985), 150 쪽

17) 최동숙, 앞의 논문, 12~13쪽

18) 장보웅, 「한국의 민가형 분류와 문화지역 구분」, 『지리학』, 제22호(대한지리학회 1980)를 볼 것

며, 이는 우리나라 농촌주택 총 2,925천동의 18.6%를 차지하고 있었다.¹⁹⁾

주택의 설비는 외적 설비로서 전기, 급수, 배수와 내적 설비로서 냉난방 환기 설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전체적으로 설비 수준이 매우 열악하였다. 특히 농촌 주택의 경우 현실적으로 급배수 설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1977년 대한주택공사의 조사에 의하면, 그 당시에도 우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농가가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재래식 농촌주택들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2) 초기 지붕개량사업

(1) 추진 과정과 성과

앞서 지적한 것처럼, 초기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는 농촌 주택의 신축이나 근본적인 개량보다는 지붕, 부엌, 변소 등 부분적 개량을 시도하였다. 민가의 외부 형태는 건축 재료의 개량과 건축술의 발전에 의해서 시대에 따라 비교적 잘 변화하지만, 평면 구조는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²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초기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형태는 기능이나 평면 구성에서의 변화라기 보다는, 구조나 설비 측면에서의 외부 형태의 변화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당시 주로 개량이 되었던 부분은 지붕과 부엌이었다. 먼저 농가의 지붕 개량은 오랫동안 논란이 된 문제였다. 벗짚을 가지고 지붕을 올리는 대신 기와나 슬레이트로 바꾸면 지붕같이 드는 노동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벗짚을 연료, 비료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워낙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손대기가 어려웠다. 이에 박정희 정부에서는 금융 지원과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붕 개량 사업에 착수하였다. 1972년부터 1978년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72년 정부지원 41억원, 주민자력 87억원, 합계 128억원을 투입하여 413천동의 지붕에 대한 개량을 시작하였다. 이후 6년간 지속된 지붕개량사업은 1978년에 38억을 투입하여 30천동의 지붕개량을 완료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 시기동안 지붕개량을 한 주택은 목표 2,456천동의 107%인 2,618천동이었다. 이 사업은 “가난하고 낙후한 농촌을 경제적이고 근대화된 농촌으로 탈바꿈

19) 내무부, 앞의 논문(1979), 145-146쪽

20) 장보웅, 앞의 논문(1980), 42쪽

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는 사업”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가시적 성과가 컸다고 할 수 있다.²¹⁾

< 표 1 > 지붕개량사업 추진실적 단위: 천동(千棟)

연 도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실 적	413	476	401	338	466	494	30
누 계	413	889	1,290	1,628	2,094	2,588	2,618

자료: 내무부, 『새마을운동 10년사』, 485쪽.

부엌의 경우는 난방 방식의 이중화, 석유 풍로 등 취사도구의 보급으로 부분적인 부엌의 입식화가 진행되었다. 개량 이전의 재래식 농촌 주택의 부엌은 뿔감을 보관하고, 취사 또는 난방과 함께 농작업이 이뤄지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주택 내부의 방들과의 관계보다는 마당과의 연결이 더 중요하였다. 부엌의 바닥 높이가 마당과 균형을 이루고 방들보다 낮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취사와 난방이 분리되기 시작하고, 연료로서 뿔감과 함께 연탄이 사용되면서 가사노동의 편리를 위해 입식 형태의 부엌으로 바뀌게 되었다.²²⁾ 이에 따라 부엌도 마당과의 연결보다는 내부 방들과의 연결이 더 편리하도록 변하게 된다. 그 밖에 욕실이나 변소 등도 그 형태가 달라지면서 좀 더 위생적인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상하수도 보급의 미흡 그리고 퇴비 문제 등으로 인해 주택의 내부로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2) 농민들의 동의와 불만

앞서 정부의 평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붕개량사업을 포함한 초기의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오늘날 농촌의 풍경을 바꿔놓았을 만큼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마을운동 성공사례집에서 나오는 많은 새마을 지도자들의 증언에 따르

21) 내무부, 『새마을운동 10년사』(내무부, 1980), 484~485 쪽

22) 70년대 당시의 연료 사용이나 주방 기구들의 현황을 보기 위해서는 조계숙 앞의 논문 23, 30 쪽을 볼 것; 1978년도의 조사 결과이고, 또 국가 전체의 통계가 아닌 특정 지역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연료나 주방 생활의 변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붕개량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해놓고 나니 “보기 좋았다”라는 반응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실제 1980년에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농촌생활 개선에 대한 평가에서 주거생활 개선이 4번째로 좋은 평가를 얻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것이 바로 지붕개량이었다. 이는 지붕개량이 농촌생활 개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²³⁾ 실제 인터뷰 결과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지붕개량에 대하여 처음에는 소극적이었고 부정적이었지. “괜히 쓸데없는 일을 한다”든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라는 불평들이 많았지. 하지만 해놓고 나니 “보기 좋다”며 많은 사람들이 지붕개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줄임)…무엇보다도 편리해졌어. 매년 지붕갈이를 해야 한 해의 일이 끝나는데, 지붕개량을 하고 나니 가을건이가 끝난 다음에 할 일이 없어 졌거든(김제, 백00, 남, 71세).

이런 측면에서 초기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정부의 강제적 동원에 대한 농민들의 동의에 기초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로부터의 강제적 동원에 대한 불만과 거부의 모습들 또한 나타나면서, 동원화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물론 농촌의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의 평면과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는 설비상의 변화였다는 점에서 사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은 아니었다. 단지 사업 추진 방식의 강제성에 대한 불만이나 주택 자재와 부실 공사, 경제적 부담 등에 대한 주변적인 불만이었다. 먼저 공무원의 과도한 독려나 간섭 또는 특정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 등에 대한 저항들이 있었다. 지붕개량사업이 주민들의 의사나 형편을 고려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남들에게 보이고 실적을 쌓기 위해 공무원들의 강제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초가지붕을 강제로 벗기고 다니는 바람에 농민들은 억지로 지붕개량을 할 수밖에 없었다. 고속도로 주변 등 사람들 눈에 잘 띄는 마을이나 농가들이 그 첫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다.²⁴⁾ 지붕개량사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청준의 소설 「

23) 이만갑, 『공업발전과 한국농촌』(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412 쪽

눈길』에서도 이러한 강제성을 엿볼 수 있다. 경제적 부담으로 지붕개량을 하지 않고 있었던 한 농가에 대하여, “이장이 쫓아와 땀을 들이고, 면에서 나와서 으름장을 놓고 가고…그런 일이 한두번뿐이었으면야…나중엔 솥재 자기들 쪽에서 사정조로 나오더라”는 것이다²⁵⁾ 그럼에도 새마을운동 초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이러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며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1972년 《신동아》의 새마을운동에 관한 르뽀 기사에 의하면, 지붕 개량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지붕개량에 부담이 많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유씨는 “빛은 없다”고 시치미를 뚝 떤다. 그러다가 동네를 한바퀴 돌고나올 때, “빛은 없다”던 얘기가 무의중엔지 지나치는 말 끝에 “지붕 개량으로 2, 3 만원씩 진 빛은 보리 때 보리가마니나 내고 가을에 벼가마니나 내면 되니까”라면서 “별 부담이 안된다”는 말에 꼬리를 달았다. 이상할 것도 없다. “빛이 없다”는 거짓말은 어느 새마을에서고 처음에는 나오는 말이었다. “빛이 노출된 마을은 시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문으로 서로들 진 빛을 감추는 것이다.²⁶⁾

이처럼 지붕개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있었음에도 서로 눈치를 보면 빛을 숨겨야 했던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지붕개량으로 인한 주거생활 자체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벼짚을 생산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었고, 노동을 줄일 수 있었다는 편리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슬레이트로 지붕을 개량한 사람들은 초가집 보다 열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한다. 곧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웠다는 것이다

벼짚이 좋은 것도 있었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그런데 슬레이트는 그게 아니었거든(김제, 진00, 남, 71세)

24) 박진도·한도현, 앞의 논문, 62쪽

25) 이청준, 『눈길』(열림원, 2005), 25쪽

26) 정연주 외, 앞의 논문, 185쪽

이것은 지붕개량이 보기에 좋고 노동력을 절감한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야기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지붕개량은 “보기에 좋았다”는 긍정적 평가 뿐 아니라, 추진과정에서의 강제성, 경제적 부담, 생활 불편 등 다양한 불만들도 야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3) 도시형 문화주택의 신축

(1) 변화된 농촌 주택

한편 1976년부터는 전통 주택의 부분적 개량을 넘어서, 농촌 주택의 근본적 개선을 목표로 도시형 문화주택 건립을 시도하게 된다. 사업 추진은 지원 개량과 자력 개량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자력 개량의 경우는 입지 선정, 주택형, 주택 규모, 도색과 식수 등 전체 마을 계획과 조화될 수 있도록 시·군 기술지도를 받아 추진하였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개량 후 5년간 감면해 주는 등의 유인 체제를 도입하였다. 한편 지원 개량의 경우는 도로나 철도변, 그리고 도로에서 가까운 지역을 먼저 선정하고, 부근에 가입하고 면장의 착공확인서를 받아 농협에 신청 용자를 받도록 하였다. 용자금은 건축 완료 후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갚아나가도록 하였다.²⁷⁾

새로 짓는 주택의 설계도는 ‘표준설계도’라는 이름으로 정부로부터 제공되었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는 “주거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적 농어촌 주택 모델을 제시하고 설계비의 절감 및 건축 허가 절차의 간소화, 자재 규격화 및 부품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표준화를 기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²⁸⁾ 표준설계도는 1972년 건설부에서 15종, 1976년 12종, 1979년에 2층형 3종, 1980년에 19종, 1982년에 6종, 1983년에 10종, 1984년에 39종을 합하여 모두 123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표준설계도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설계안도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포함하면 그 종류는 훨씬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²⁹⁾

하지만 도시형 문화주택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여러 번의 수정 계획을 거치다

27) 이대복, 앞의 논문, 41~42쪽.

28) 김태원 외, 앞의 논문, 63쪽.

29) 위의 논문, 63쪽.

가, 결국 79년도부터 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누적된 채로 있게 된다. 개량 대상은 540천동으로 농촌 주택의 19%에 해당하나, 개량 실적은 185천동으로 목표치의 34%에 불과하였다. 지원 액수 역시 정부의 긴축 시책에 따라 감소하였고, 반면 자재와 노임은 증가하여 평당 건축비도 인상, 조정되면서 실질적인 혜택으로서의 의미가 축소하게 되었다.

결국 농촌개량사업을 통해 도시형 문화주택이 건축된 것은 전체 농촌 주택 가운데 약 7%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당시 등장한 농촌 주택의 표준설계안은 농촌 주거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70년대 후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기준 평면의 규모와 기능 및 형태 면에서 전통 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상이한 양상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농촌주택 평면을 획기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³⁰⁾ 뿐만 아니라 농촌 주택의 발달 과정을 분류할 때, 보통 70년대 이전은 전통적인 주거 평면, 70년대 하반기 표준주택 평면, 그리고 80년대부터 개량형 평면으로 구분한다.³¹⁾ 물론 80년대 이후 개량형 평면으로 변화하기는 하지만 결국 70년대 후반기의 평면 구성에 대한 부분적 개선일 뿐, 전혀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79년 이후 농촌에서 지어진 신축 주택은 모두 새마을운동 당시 건축되기 시작한 도시형 농촌주택이라고 한다.³²⁾ 실제 인터뷰를 위해 방문했던 농촌 마을의 주택들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당시의 설계 평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형태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70년대 후반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단순히 그 비율을 넘어서, 오늘날 농촌 주택의 형태를 결정했다고 할만큼 그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형 문화주택은 과거의 재래식 농촌 주택과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가? 크게 3가지의 차이점을 지적할 수 있다.³³⁾ 먼저 전통적인 홑집 형태의 가옥

30) 예용광, 앞의 논문, 43쪽

31) 전호상·이상해, 「농촌 근대화 과정에서 70년대 새마을운동의 ‘농촌 표준주택 설계모’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 논문집 계획계』, 21권 1호(대한건축학회 2001); 그리고 김태원 외, 앞의 논문, 60쪽

32) 김성우 외, 앞의 논문, 116~117쪽.

33) 농촌주택개량사업 당시 표준설계도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할 때 세 가지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다. 이를 보기 위해서는 김태원 외, 앞의 논문, 60~61쪽, 예용광 앞의 논문, 43~44쪽, 그리고 전호상·이상해, 앞의 논문을 볼 것

에서 겹집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 도시형 겹집 형태를 취했다는 것은 농촌 주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받는다.³⁴⁾ 겹집의 등장 이유에는 기능 처리의 효율화, 보존 효과의 극대화, 위생시설의 실내화, 가사노동의 내실화, 폐쇄적 경향화 등이 거론된다. 다시 말하면, 상수도 보급과 보일러 설비, 그리고 취사 기구 등의 등장으로 부엌이나 화장실 등의 내부화가 가능해지면서, 각 방들을 집약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주거 공간이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홑집 형태의 표준설계제도 있었지만 그 채택 비율은 수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³⁵⁾

둘째, 전통적인 좌식 생활이 부분적인 입식화 양상을 겪게 된다. 우리 주택은 고대로부터 좌식 생활에 알맞도록 내부 공간의 규모, 가구 높이, 창호의 높이 등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양식 주택이 도입되면서 침대, 식탁, 책상과 의자 등 입식 가구들이 널리 보급되면서 좌식 생활과 입식 생활이 공존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미닫이 문 등을 활용하여 각 방들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입식 생활이 도입되면서 각 방에 가구들이 들어서게 되고 각 방의 기능들이 침실, 공부방 등으로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셋째, 마루가 창으로 내부화되면서, 각 방들을 연결하는 매개 공간의 역할을 하게 된다. 홑집 형태의 재래 주택에서 마당이라는 공간은 주거 공간이면서 동시에 농작업을 위한 생산 공간이기도 하였다. 또한 마루와 각 실들을 연결하는 매개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창을 통해 마루와 마당이 구분되면서, 주거 공간과 생산 공간이 분리된다. 따라서 각 방을 연결하던 마당의 매개 기능도 사라지게 되고, 이제 마루(거실)가 각 방들을 연결하는 매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곧 모든 방들은 거실을 중심으로 배치되고, 안방과 함께 가족 전체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변화는 전형적인 도시형 주택으로의 변화로 해석된다. 먼저 집과 일터가 구분된 도시처럼, 주거와 생산 공간의 분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방의 기능 분화를 통해 1실 1기능을 가진 방으로 고정되면서 재래식 주택의 융통성 있는 방의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또한 마루의 유리문 등으로 외부와 주거 공간이 차단되면서 주거생활의 프라이버시가 증대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

34) 김태원 외, 앞의 논문, 64쪽

35) 위의 논문, 64쪽

는 농촌 생활양식과의 차이 때문에 많은 불만이 야기되었다. 그렇다면 재래 주택과 많은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 새로운 주택 사업에 대해 농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다음 단락에서는 농민들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농민들의 동의와 불만

새로운 주택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추진방식과 주거 공간의 이용을 둘러싼 반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 추진에 대해 농민들은 소극적인 형태의 동의 또는 비순응의 모습을 보였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민들의 보수 성향, 전시효과 위주의 사업 그리고 농민들의 부담을 경시한 점 등 때문에 강제적인 집행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실무 행정인들의 말에 따르면 사업 초기 주택 개량의 필요성에 대하여 농민들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주택 개량 희망 농가의 경우 군/면 직원들이 이왕이면 전시효과가 큰 곳을 지정하려고 해 부득이 택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희망 농가가 아닌 경우에는 면직원들의 방문을 10여회 받고, 이장이나 마을 회의를 통해 농촌주택개량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³⁶⁾

실제로 당시 농민들에 대한 의식 조사를 보면, 농촌 개량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이만갑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당시 농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자녀의 교육 문제’로 무려 63.9%가 그것을 가장 절실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었다. 그 다음의 주요 관심사로는 영농 기술(11.5%)과 주택(10.5%)이었다. 주택 신축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람도 28.1% 밖에 되지 않았다.³⁷⁾ 또 다른 조사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앞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그 늘어난 재산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질문에 대하여, 역시 자녀교육(28.49%), 문화생활(22.93%), 전답을 사는 것(22.66%)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집을 잘 짓고 사는 것’이라는 응답은 12.41%로 네 번째로 나타났다.³⁸⁾ 당연히 정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호응도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사업 내용을 들어

36) 이대복, 앞의 논문, 68~69쪽.

37) 이만갑, 『새마을연구보고서 제1집: 한국 농촌주택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새마을운동종합연구소, 1980), 12쪽.

38) 이대복, 앞의 논문, 56쪽.

서 알고 있는 사람은 75%나 되었지만 개량사업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0%에 불과한 것만 보아도 그렇다³⁹⁾ 따라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강제적 형태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했다. 융자금이 적어 필요 없는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다는 비판에서부터, 획일적인 표준설계도를 강제하여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주택을 개량하지 못했다는 불만까지 다양했다.⁴⁰⁾

때문에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전체적 의견은 “너무 서둘렀다,” “전시효과만 노린다,” “과연 필요한가?” 등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 해놓고 보니 괜찮다”라는 정도가 농민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이 늘어난 데에는 지어놓은 집에 대한 과시적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집을 지었다는 성취감에 대단히 흐뭇해하고 있었으며, 문화 주택이라는 긍지 내지는 보람도 갖고 있었다⁴¹⁾

결국 주택 개량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던 농민들을 대상으로 박정희 정부는 강제적인 방식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초기에 많은 불만들이 있었지만, 주택의 과시적 효과와 마스크의 홍보 때문에 ‘지어놓고 나니 보기 좋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78년 개량사업을 완성한 농가는 개량 전 13%가 주택개량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완성 후에는 6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있다.⁴²⁾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정부의 강제적 동원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농민들의 만족을 끌어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로운 주택의 주거공간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근대 주택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건축자가 개입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측면에서의 욕구가 전달되고 반영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 패턴 및 행태를 고려하여 사용자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⁴³⁾ 그런 측면

39) 이만갑, 앞의 책(1980), 20 쪽

40) 최동숙, 앞의 논문, 22 쪽

41) 이대복, 앞의 논문, 82 쪽

42) 최동숙, 앞의 논문, 22 쪽

43) 한필원, 앞의 논문, 2 쪽

에서 보았을 때,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들은 농민들의 이용 패턴이나 행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고, 일방적으로 도시형 주택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당시의 주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서양식으로 된 건물이 많았으며 외관상으로는 한국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도 있지만, 그런 경우라도 건물 내부는 서양식을 많이 가미했기 때문이다.⁴⁴⁾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조사되기도 한다. 도시형 평면 구조가 전통적인 농촌의 생활양식과 충돌하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나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곁집 형태의 표준형 주택에서 ‘마루’는 모든 방들을 연결하는 매개 공간으로서 중앙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마루 구조는 보수성이 강한 농촌의 가족 제도와 충돌하곤 하였다. 예를 들면, 여름철 시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있으면 모든 방안이 전부 들여다 보이고, 또 며느리는 마루를 통해서 왕래하기 어렵고, 젊은 며느리를 얻은 시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있기가 민망스럽다는 것이다. 때문에 어떤 노인은 자거나 식사 할 때만 집에 들어오고, 그 외에는 집에서 편히 있을 수 없어 밖으로 나가준다고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⁴⁵⁾ 이런 문제 때문에 표준 주택에서 사라졌던 사랑채가 다시 등장하면서, 세대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공간으로 등장하게 된다. 또한 ‘마루’는 단지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지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며, 주택 공간 가운데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가택신인 성주동우를 모시고, 또 조상의 지방(紙榜)을 모셔두며,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마루가 중앙에 위치하여 각 방으로 통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전통적인 마루의 기능이 전부 없어졌다고 지적되었다.⁴⁶⁾

하지만 이러한 불만들 역시 농촌주택의 근대화란 대의명분에 밀려 소극적인 형태의 불만에 머물렀다. 더군다나 농민들은 스스로 주택을 부분 개량하면서 문제점이나 불편한 요소를 고쳐나가게 된다. 이는 70년대 후반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어진 문화주택들이 농민들의 생활습관과 맞지 않는 과도기적 주택 유형이었음을 밝혀주는 것이다. 이후에 지어진 농촌 주택들은 도시형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44) 이만갑, 앞의 책(1984), 82 쪽

45) 장보웅,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 파생되는 문제와 그 대책 - 전남 지방의 전통 농촌주택과 개량 농촌 주택 비교 연구」, 『지리학』, 19호(대한지리학회, 1979), 47 쪽

46) 위의 논문, 47 쪽

공간 사용방식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여주게 된다.⁴⁷⁾ 1980년대 이후 등장하게 되는 개량형 평면이 그것인데, 이는 도시형 주택 공간과 전통적 생활양식의 절충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⁴⁸⁾ 이는 초기 문화주택의 불편함을 농민들이 스스로 자체 개량을 통해 해소시켜 나간 것이라 볼 수 있다.

IV.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결과와 그 영향

이처럼 농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다양하였다. 한편에서는 “보기에 좋아졌다”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는가 하면, 사업 추진의 강제성과 농촌 생활과의 괴리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래에 살펴보겠지만,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하여 정부에서 성취하고자 한 정책적 목표는 그 성과가 극히 미흡하거나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농민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단락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1. 미흡한 정책적 성과

앞서 지적한 것처럼,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도농간의 격차 이농 현상 등에 직면하여 농촌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농촌에서의 지지기반 확보라는 목적 하에 추진되었다. 따라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정책 목표는 크게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농민들의 의식개혁, 농촌 지역의 소득 증대, 그리고 도농간의 격차 해소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목표는 그 성과가 불투명하거나 극히 제한적이었다.

먼저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농민들의 의식 개혁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농

47) 김성우 외, 앞의 논문, 127~128쪽.

48) 이를 보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김태원 외, 앞의 논문, 67~69쪽을 볼 것

촌주택개량사업의 정책적 목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주거 환경 개선은 농민들의 소득을 주택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소비를 억제하고, 융자금 등을 갚기 위해 더욱 근면한 생활 태도를 낳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⁴⁹⁾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이것이 과거 나태하고 게을렀던 농민들을 근면하고 성실한 농민으로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정부에서는 “새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에는 근검절약이 있어야 하고 새 집을 짓는 작업에는 근면과 협동이 뒤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⁰⁾ 그러면서 1970년대 이전의 농민들이 “무지와 빈곤 속에서 살면서도 더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나태와 질서 속에서 음주와 도박으로 소일하고”, “완고한 봉건 사상의 타성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개혁정신은 찾아볼 수도 없는 무표정과 무관심” 속에서 살아왔다고 말한다.⁵¹⁾ 하지만 과연 1970년 이전의 농민들이 나태하고,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도 없었는가를 질문한다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이미 새마을운동 이전에도 자발적인 농민들의 움직임들이 있었다. 1960년대는 농촌 사회가 매우 정체되어 있었지만, 그 이전과는 달리 농민들은 광범위한 변화의 욕구를 키워가고 있었다. 농민들은 1960년대 들어 급속히 보급된 라디오, 스피커, 신문 등을 통해 외부 세계와 일상적 접촉을 확대하였고, 이를 통해 욕구 수준을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서 일부 마을에서는 농촌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와 대중들이 출현하기도 하였다.⁵²⁾ 따라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하여 농민들의 의식 개혁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오히려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농민들의 의식개혁과는 별 관련이 없었다는 조사 연구들이 있다. 한 동네에서 한 집 정도가 주택개량을 할 경우, 인보정신(隣保精神)에 의하여 최소 1일에서 2~3일 정도 동네 주민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집단적으로 주택 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새마을 협동방식’에 의하여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집짓기에 좋은 시기를 서로 놓치지 않으려 하고, 또 서로 자기 집을 먼저, 더 낮게 지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 주택은 개인 소유이며 금

49) 내무부, 앞의 책(1979), 65 쪽

50) 위의 책, 66 쪽

51) 내무부, 『영광의 발자취』(내무부, 1978), 35~36 쪽

52) 고원, 앞의 논문, 185 쪽

용 관계가 따랐기 때문에 협동 태도를 낳기에는 장애가 많았다는 것이다.⁵³⁾ 다른 조사에서도 새마을운동의 역점 사항이 농로나 마을 진입로 확장과 소교량 가설과 같은 사업에서 지붕이나 변소 개량 등과 같은 주택개량사업으로 넘어감에 따라 주민들의 집단적 노력 지원은 점차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다.⁵⁴⁾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농민들의 태도나 의식의 변화를 낳았다는 주장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농촌주택개량을 통한 농촌 소득 증대라는 경제적 목표는 어떠했는가?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열성적으로 활동했던 어떤 증언자는 “길 만들고 넓힌 것 말고는 “특별히 새마을운동으로 혜택 본 것 없다”는 식으로 농촌 새마을운동을 총괄적으로 평가한다.⁵⁵⁾ 그에 따르면, “담장, 변소, 지붕 등 개량사업도 농가의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는 했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하등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앞서의 사례에서처럼, 지붕개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 이것을 감춰야 하는 분위기마저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은 이보다 훨씬 더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정책적 효과 가운데 하나로 ‘농촌 재산형성의 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⁵⁶⁾ 농촌 주택을 개량하여 문화주택을 갖는다는 것은 농촌의 기본 가산이 크게 증식됨을 뜻하며 주택의 가산적 가치가 크게 증대됨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곧 농촌 주택에 대한 투자는 농촌의 기본 가산을 증식시키고, 농촌의 재산을 형성해나가는 실물투자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개량을 통한 결과가 임대 내지는 거래가 용이하지 않은 농촌이기 때문에 재산 형성의 장기 전략으로 보기는 힘들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촌 재산 형성으로 더욱더는 전답이나 임야를 우선 손꼽고 있었다.⁵⁷⁾ 실제 인터뷰에서도 신축 개량 주택이 농민들의 재산 가치로서는 별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3) 이대복, 앞의 논문, 81 쪽

54) 유병용, 『근대화전략과 새마을운동』(백산서당 2001), 97 쪽

55) 위의 책, 95 쪽

56) 내무부, 앞의 책(1979), 65 쪽

57) 이대복, 앞의 논문, 80-81 쪽.

주택개량을 반대하는 아버님하고 많이 싸웠지...들어간 돈이 그 때로 치자면
 18 마지기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적지 않은 액수였어...(연기군, 흥00,
 여, 69세) “아마 그 때 그 돈으로 전답을 사두었으면 지금쯤 떼부자가 되었
 을텐데...(연기군, 윤00, 여, 61세)” “아, 그런 소리 말어. 촌부자가 일부자여
 농부가 땅 많으면 고생만 하지, 뭐...(연기군, 흥00, 여, 69세).

위의 대화에서 우리는 주택개량에 따른 당시의 경제적 부담이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회의를 확인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당시 주택개량에 들어갔던 돈의 액수를 설명하는 과
 정에서 주택개량사업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희생하고서 얻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주택 개량에 대한 투자는 별다른
 경제적 효과를 낳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실사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 등이 있었
 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투자 기회를 희생하고서 얻어진 것이었다. 앞서 보았
 던 것처럼, 이 당시 농민들에게는 자녀 교육, 전답, 영농기술 등이 주택보다 더 시
 급한 요구사항들이었다. 이것을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는 주택에 대한 투자로 반강
 제적으로 유도했던 것이다.

이처럼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정부의 정책적 목표들은
 그 효과가 극히 미흡했거나, 아니면 불확실한 것들이었다. 실제로 농촌주택개량사
 업을 통한 소득증대, 도농격차의 감소, 이농현상의 억제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
 기는 힘들다. 하지만 도시형 문화주택, 근대적 주택에 살게 되었다는 주관적 만족
 감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당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긍정적으로 평
 가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도시다운 삶'의 과시적 효과

이처럼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원래 정책적 목표는 그 달성이 매우 불확실했거나
 미흡하였다. 또한 앞서 보았던 것처럼 사업 추진 당시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 역시 매우 다양하였다. 반강제적 추진에 대한 반발이나 불만 슬레
 이트 지붕의 열처리나 부실한 시공에의 불만, 농촌의 생활양식과 맞지 않는 주거

에 대한 불만족 등이 그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민들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성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처음에는 불만도 많고 그랬지만, 지어놓고 보니 보기도 좋고, 잘 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인터뷰를 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도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농촌이 좋아졌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특별한 정책적 성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한 당시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사업 추진 때문에 많은 불만이 있었던 사업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게 되었는가? 이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재래 주택에 비해 공간도 넓어지고, 설비들도 좋아졌으니 긍정적인 반응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인터뷰 대상자는 새로운 주택에 불만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부모님 모시고 10여명의 식구들이 방 3칸짜리 초가에서 살고 있었는데, 방이 6개나 되고 부엌도 입식으로 고친 새집에 무슨 불만이 있을 수 있겠어?”라고 답하였다. 그만큼 기존의 주택의 현실이 열악했기 때문에 새로운 개량 주택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앞서 보았던 것처럼 새로운 주택은 일상생활의 다른 필요들을 희생한 다음 얻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농민들이 주택개량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밝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도시형 문화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농민들도 도시다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만족감에서 찾을 수 있다. 처음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날로 늘어가는 도농간의 격차 해소가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1970년대 당시 농민들은 자신들이 근대화과정에서 배제된 데 대한 소외감을 농촌의 지배계급이나 국가에 대항하여 싸우기 보다는 도시와 그 문화에 대한 막연한 반감의 형식으로 표출하고 있었다. 이것은 1950년대부터 이어져 온 정서적 맥락이었는데, 1960년대에 있어서 그것은 도농간 격차가 커지는 데서 나오는 농민들의 도시에 대한 동경심과 동시에 질시, 상실감, 좌절감 등과 파열음을 일으키게 된다.⁵⁸⁾ 이러한 배경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민들의 이러한 상실감을 충족시켜줄 다른 정치적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과시적 전략이었다.⁵⁹⁾ 따라서 박정희 정부가 농촌주택개량사업

58) 고원, 앞의 논문, 196쪽.

59)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1974년도 들어서면서 농가의 소득이 도시 노동자의 소득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내무부, 『새마을운동: 시작에서 오늘까지』(내무부, 1979), 123쪽의 <도표III>을 볼 것 하

이 갖는 의미의 하나로 도시형 문화 주택이 갖게 되는 과시적 효과에 주목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한편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문화 주택을 갖게 된 농민들의 보람찬 기쁨은 귀로만 듣던 국력신장과 입으로만 말하던 국가 발전의 산 증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피부로 실제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탈바꿈된 농촌 마을을 보고 스스로 놀라는 농민들의 긍지는 1,000불 국민소득 125억불 수출실적을 실감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강조는 옮긴이).⁶⁰⁾

1980년대 한 조사에 따르면, 농촌의 주거 생활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붕개량사업’을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양육이 늘었다’, ‘집이 현대화되고 대형화됐다’라는 응답이 많았다.⁶¹⁾ 당시 농촌의 분위기는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의 보급으로 제한적이거나 도시적 분위기를 동경하고 있었으며, 편리성이라는 실용주의적 측면을 중시하는 가운데 전통적 직업 생활양식 문화유형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⁶²⁾ 한 연구자는 취락구조사업으로 인해 달라진 농촌의 변화에 대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근대 도시의 신혼 주택에서 보기 어려운 이른바 문화 주택들의 질서정연한 군집이며, 과연 그 속에 농민들이 거주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적고 있다.⁶³⁾ 여기에서도 역시 도시 주택과 농촌 주택을 대비하면서, 농촌 주택의 개량으로 도시다운 주택을 가졌다는 자부심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 의도와 농촌의 전통적 생활양식을 탈피하고자 했던 농민들의 요구가 잘 맞아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당시 주택을 개량한 인터뷰를 보면, 면접한 농민들은 “이 집도 읍에 갖다 놓으면 고가임” 또는 “시의 주택의 평균 수준은 충분히 될 것” 등의 말을 많이 하는데, 이는 자신들도 도시 수준의

지만 이러한 통계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보기 위해서는, 고영복(외), 「권두좌담: 왜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는가?」, 《신동아》, 1979년 7월호, 97쪽을 볼 것

60) 내무부, 앞의 책(1979), 64 쪽

61) 위의 책, 412쪽

62) 한필원, 앞의 논문, 14~15쪽.

63) 이만갑, 앞의 책(1980), 8 쪽

문화 주택에 살고 있다고 인식하는데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정부와 언론에서 “도시 부럽지 않은 주택” 등으로 선전한 영향이기도 하다.⁶⁴⁾ 실제 인터뷰에서도, 도시형 문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남부럽지 않은 현대적, 서양식 문화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자부심을 많이 표현한다.

옛날 식 집, 한옥하고는 다르고 새로우니까..(농민들이) 좋아했지 연기군 엄 00, 남, 75 세).

그때 당시 지어질 때는 이 집이 블란서 풍으로 지어졌다고 했어요...(줄임)...

그래서 외지 사람들이 우리 집을 보러 많이들 오고 그랬어요(연기군, 김00, 남, 77 세).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한 농촌 주거 환경의 변화에 대한 농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이러한 대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근대화과정에서 배제된 소외감, 도시에 대한 동경과 열등감 등이 도시적 문화주택을 소유함으로 인해 그 상실감을 보상받았던 것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성과로 많은 농민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표현들, 곧 “보기에 좋아졌다”는 말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전제하고 있다. “남 부럽지 않은 주택”이란 표현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이 자신들의 주택을 보는 시선은 도시민의 시선이다. 이제 자신들도 도시민들과 동등해졌다는 것이다.

결국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그 정책적 성과도 불투명하고, 주거 공간에 대한 다양한 불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물질적인 설비 등의 개선으로 인한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와 함께 그 밑바탕에는 그동안 도시에 대한 상실감과 열등감을 도시형 문화주택을 소유했다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극복하려는 욕구가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농촌의 주변 환경이나 생활방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가 농촌 지역에도 퍼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역시 ‘도시적 삶’에 대한 농민들의 욕망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64) 이대복, 앞의 논문, 82~83쪽.

V. 마치며

1970년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우리 농촌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사업이었다. 그리고 당시 박정희 정부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농촌 새마을운동의 가장 성공적인 사업의 하나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개량사업의 통계 수치나 가시적인 변화만을 가지고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일정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정부로부터 반강제적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때문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총체적인 이해와 판단을 위해서는, 이 사업의 정책적 목표가 얼마나 성취되었으며, 동시에 농민들은 주거 환경의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정책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성과는 극히 미흡하거나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농민들의 의식개혁, 소득증대, 도농격차 해소, 이농현상 억제 등과 같은 정책적 목표들의 성과가 극히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사업 추진 당시에는, 물론 “보기 좋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강제성, 농촌 생활 방식과 조화되지 못한 도시형 양옥 구조에 대한 불만, 그리고 당시 많은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무시한 경제적 부담 등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저항이나 불만들도 적지 않았다.⁶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인터뷰를 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농촌의 발전을 야기한 매우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농민들의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인가? 분명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었던 정책적 목표와는 다른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곧 ‘남들 보기에’ 또 ‘도시 사람들과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은’ 도시형 양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농민들의 필요충족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 도농간의 격차가 어떠했는가와는 무관하게 농민들에게는 도시적인 주거 환경을 누리게 되었다는 과시적 효과가 컸다고 할 수 있다.

65) 그런 의미에서 새마을운동의 성패는 단순한 통계치나 가시적 변화를 통해 규정될 수 없다. 일상 생활에서의 반응은 매우 복합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반응이 실제 박정희 체제의 유지와 균열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따라서 단순한 함의만을 아래에서 다루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근대화과정에서 배제된 농민들의 소외감 도시에 대한 동경과 열등감 등이 도시적 문화주택을 소유함으로써 그 상실감을 보상받으려 한 것이다.

반면 사업 추진 당시의 다양한 형태의 불만과 저항들은 박정희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까지 확장되지는 못하였다. 나치 치하의 제3 제국에서의 일상생활을 연구한 포이케르트는, ‘체제 비판의 폭’과 ‘행위의 공간’이라는 두 축에 따라서, 나치 치하에서의 일탈 행위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곧 일탈 행위에서 체제 비판의 폭이 부분적인 것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옮겨갈수록, 그리고 행위의 공간이 개인적인 공간에서 국가 관련 공간으로 옮겨갈수록, 일탈 행위는 비순응, 거부, 항의, 저항의 형태로 발전해간다는 것이다.⁶⁶⁾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둘러싼 농민들의 불만이나 저항의 형태들은 개인적인 행위 공간에서 일어난 부분적 체제 비판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포이케르트의 개념에 의하면, 당시 농민들의 반응은 국가 관련 수준의 체제 자체에 대한 항의나 저항의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비순응이나 거부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그 원인은 당시 박정희 정부의 엄격한 통제 탓일 수도 있고, 농촌 사회의 공동체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이 글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다. 다만 여기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도시적 주거환경’ 또는 ‘도시적 양육’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주관적 성취감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성공으로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일 것이다.

참고문헌

강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서울 민음사, 1998.

고영복 외, 「권두좌담: 왜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는가?」, 《신동아》, 1979년 7월호

고원, 「박정희 정권 시기 농촌 새마을운동과 ‘근대적 국민 만들기」, 『경제와사회』 제9호 2006, 178~201쪽.

66) 데틀레프 포이케르트(저)/김학이(역), 『나치 시대의 일상사: 순응, 저항, 인종주의』(개마고원, 2003년), 120쪽 그림을 볼 것

- 김동노, 「식민지 시기 일상생활의 근대성과 식민지성」,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서울 혜안 2004.
- 김성우·윤정숙·이유미, 「공간사용을 중심으로 본 농촌주택의 근대적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6호, 1996, 115~129쪽.
- 김태원·윤일이·조성기, 「농촌주택의 근대화 과정에서 본 내·외부공간 변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논문집』 제60집, 2001, 59~73 쪽
- 내무부, 『민족의 대역사: 농촌주거사』 서울 내무부 1979.
- 내무부, 『새마을운동: 시작에서 오늘까지』. 서울: 내무부, 1979.
- 내무부, 『새마을운동 10년사』. 서울: 내무부, 1980.
- 내무부, 『영광의 발자취』. 서울: 내무부, 1978.
- 데틀레프 포이케르트(저)/김학이(역), 『나치 시대의 일상사: 순응, 저항, 인종주의』. 개마고원 2003.
- 박재환(편), 『일상생활의 사회학』. 서울: 한올아카데미, 1994.
- 박진도·한도현, 「새마을운동과 유신체제: 박정희 정권의 농촌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통권47호, 1999, 37~80 쪽
- 예용광,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나타난 마을 및 주거 공간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 유병용, 『근대화전략과 새마을운동』. 서울: 백산서당 2001.
- 이대복, 「농촌주택개량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 이동락, 「농촌주택 옥내 생활공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8.
- 이만갑, 『공업발전과 한국농촌』.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 이만갑, 『새마을연구보고서 제1집: 한국 농촌주택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새마을운동종합연구소, 1980.
- 이원, 「농촌 주택의 주거공간과 주생활 상호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1987.
- 이청준, 『눈길』. 서울: 열림원, 2005.
- 이호진, 「농촌과 도시의 주거공간 비교연구」, 『건대학술지』 제29집, 1985.
- 임경택, 「한국 권위주의체제의 동원과 통제에 대한 연구: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 장보용,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 파생되는 문제와 그 대책 전남 지방의 전통 농촌주택과 개량 농촌주택 비교 연구」, 『지리학』 19호, 1979.
- 장보용, 「한국의 민가형 분류와 문화지역 구분」, 『지리학』 제22호, 1980.

- 장성준·윤장섭, 「농촌주택표준설계도의 역할과 현지수용에 대한 연구」, 『산업기술연구소논문집』 4권, 1985.
- 전호상·이상해, 「농촌 근대화 과정에서 70년대 새마을운동의 ‘농촌 표준주택 설계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 논문집(계획계)』, 21 권 1호, 2001.
- 정연주(외), 「르뽀: 새마을운동」, 《신동아》, 1972년 7월호.
- 조재순, 「농촌가정 생활향상에 따른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1978.
- 최동숙, 「재래주택주민과 개량주택주민의 주택개량에 대한 태도와 주거만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1.
- 한필원, 「농촌지역 농기주택의 이용패턴 변화에 관한 연구: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1987.

국문 요약

1970년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우리 농촌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은 사업이었다. 농촌 주거환경의 가시적 변화와 개량사업의 통계 수치가 그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정부가 특정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추진한 동원사업이었다. 때문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총체적인 이해와 판단을 위해서는, 이 사업의 정책적 목표는 무엇이고, 또 얼마나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농민들은 이러한 주거 환경의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정책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성과는 극히 미흡하거나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농민들의 의식개혁, 소득증대, 도농 격차 해소, 이농현상 억제 등과 같은 정책적 목표들의 성과가 극히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사업 추진 당시에는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강제성, 농촌 생활 방식과 조화되지 못한 도시형 양육 구조에 대한 불만, 그리고 당시 많은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무시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하여 소극적인 형태의 저항들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농촌의 발전을 야기한 매우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농민들이 정부에서 의도했던 정책적 목표와는 다른 맥락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수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곧 ‘남들 보기에,’ 또 ‘도시 사람들과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은’ 도시형 양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농민들의 욕구 충족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근대화과정에서 배제된 농민들의 소외감, 도시에 대한 동경과 열등감 등을 도시적 문화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보상받으려 한 것이다. 결국 농촌주택개량사업 미흡한 정책적 성과와 일상에서의 많은 불만들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도시형 문화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자신들도 도시적인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주관적 만족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만족감은 농민들에게 근대화과정에서의 소외감과 도시에 대한 열등감을 보상하는 기제로 작동한 것이다.

● 투고일 : 2006. 10. 12.

● 심사완료일 : 2006. 11. 27.

● 주제어(keyword) : 새마을 운동(Saemaul Undong), 농촌주택개량사업(Rural Housing Improvement Project), 지붕개량사업(Roofing Improvement Project), 일상생활(Everyday life), 농촌주택(Rural housing), 도시형 양옥(Urban-style housing)